

8. 所屬政黨與社會團體別議員數

自由黨	民主黨	朝民黨	國民會	勞總	無所屬	計
10				2	3	15

十六. 市教育委員會

1. 市教育委員名單

住 所	姓 名	性別	生 年 月 日	職 業	所屬政黨團體	備 考
江陵市笠岩里 472	金 振 河	男	4244 10,10	會計員	無 所 屬	
" 松亭里80	崔 復 圭	"	4245,7,9	農 業	自 由 黨	
" 長峴里 8	崔 乘 龍	"	4252,1,7	組合員	無 所 屬	
" 幼山里178	李 相 哲	"	4245,6,3	會計員	自 由 黨	
" 溟州洞50的15	金 德 起	"	4238,9,17	商 業	民 主 黨	
" 洪濟洞58	李 錫 永	"	4249,9,26	農 業	無 所 屬	
" 林塘洞141的2	曹 大 鉉	"	4245,9,28	醫 師	"	
" 城南洞204	辛 萬 善	"	4246,8,8	寫真師	自 由 黨	
" 池湯里247	金 在 星	男	4248,5,10	農 業	"	
" " 374	金 貞 默	"	4236,2,1	"	"	

十七. 公 務 員

1. 市廳職種別定員現員表

市 長		副市長		地方參事		地方技佐		主 事		地方主事		技 士		地方技士		地方書記		地方技員		計	
定員	現員	"	"	"	"	"	"	"	"	"	"	"	"	"	"	"	"	"	"		
1	1	1	1	3	3	1	1	2	2	17	17	1	1	9	9	16	15	6	6	67	66

2. 各洞職員現員表

洞 數	洞 長	洞 書 記	國 民 班 長
38	20	23	473

## 附 錄

### 名 勝 古 蹟

#### 1. 穢國古城

距今千五百餘年前 穢國의土築城壁으로江陵市東端에 있으며其周圍三千四百八十尺이나現在其跡만僅存함

#### 2. 唐 門

高麗初期의建造物로印度式建築으로 著名하여 約千年의 古蹟으로寶物記念物로서保管됨

#### 3. 烏竹軒 江陵市竹軒里所在

가. 軒은 江陵市北約里十에相距하고 江陵의名勝 鏡浦台와約十里未滿의相距로 交通이便利하여常時探勝客의往來가不絶함

나. 軒은 距今約五百年前巳卯에 名賢進士 申公 命和先生의 古基로申公은后承이無하고 다만外孫二姓이有하니 一則曰權氏요 一則曰李氏即 栗谷先生인데 先生이是軒에서 四百八十年前中宗三十一年丙申十二月二十六日에 誕生하였음 先生誕生元夕에母夫人師任堂 申氏의現夢에 自天上이로 黑龍이母夫人의 寢室로 飛入의 祥夢이有하故로 房名曰 夢龍室이라命名함

다. 現在古蹟으로는 栗谷先生의 愛用遺硯(端溪産磁石)과 筆跡刻板 (唐詩五絶六幅) 眞本은 江陵市柄山里 崔氏家에 所藏되었음 距今百六十五年前 巴西에 正宗大王께서 古跡을大覽하시고 硯背에御製御筆의 彫刻을加하시고 同時에所藏閣을一棟을 軒傍에新築하고 名曰 御製閣임

라. 軒은 權氏가世世로 古基의主人이되어있고 軒名 烏竹軒은 軒傍에 烏竹이有하여 古松數十椽가

色蒼蒼古하고 形如此蓋하며 堆陰이至廣하여 鳥竹과 共通한氣象은 軒中風致에 一層有助됨은 論이고 株의周圍는 約十五尺乃至二十尺에達하여 五百餘年의 歷史를表證함

#### 4. 鏡浦台

##### 가. 鏡浦台의 由來及景概

本台는 關東의 名勝으로 所在地는 江陵市北十里亭洞里 即鏡浦湖上山麓에在하고 湖水의 元來周圍는 三十餘里에達하였으나 現在는 河川의 流砂關係로 埋沒되어 三分之一에不過함 湖水가 恒時淸淨하여 新磨의 鏡玉과如함으로 名曰鏡浦라함 湖水의 深淺은 四面이同一하고 水深은人 有이不沒하고 湖上에台가有하고 台畔에 鍊栗石臺가有하니 即新羅仙人 永郎述郎이 淸遊의遺跡 이라傳할시 르봉을背하고 南은草堂에對하며 浦東板橋가在하여 名曰江門橋요 橋北에 竹島가有하 고 島北에는 一岸平沙가 襟帶의으로十里以上 湖岸에老松은 湖面에映倒하고 白沙岸際와 蒼海萬 里를 一目에直望하며 常時로 湖海를連通하여 白鷗雙雙飛來飛去하며 浮沈鎗鎗視野의 絕景은百 開이不如一見으로 可謂關東第一의 佳景임을探求할수있음 童男童女五百人으로 三神山不老草를採 藥하든 徐神의消息과 萬乘始皇을博浪沙에 一推로狙擊하든 黎力士의 威風을聯想할수있으며 沙 岸의 長松翠陰과 白鳥浮沈은 聖泰를歌하고 大韓의 華麗強士를 자랑하는듯함 其中風物에日出 의奇觀은 海東國에 著名되었음 特히日出之景은 湖海相聯한 關係로 그湧海의彩虹如한 月柱가 湖海面에 長射되는 氣像과 重月의異觀은 實로壯大함 風景의 絕美는勿論이요 肅宗大王의 御 製詩와栗谷先生의 十歲作賦가 奉懸됨을探求할때 一層더 重大한史趣가 많음 台는往古丙寅距今六 百二十八年前에 朴叡이 關東按節使時에 所建으로서 李朝中宗戊辰頃 距今約四百四十年前 江陵府

使 韓汲이 現在地에移築하고 現建物은 癸酉距今約八十年前 府使 李稷鉉의 所建인데 其後累次 重修를加하였음

##### 나. 鏡浦台의 八景

1. 綠苔日出 綠苔는 鏡湖東南方海岸에 落落蒼松이 矗立한 地에在한 舊家松亭을證言함 日出은 苔의 東方인 關係로 早期日出時에 海上及 湖水面을連通하여 日出의 壯嚴한 光景을 讚揚한 景觀이요
2. 竹島明月 竹島는 鏡湖東南方에在한 海岸에 突出峰으로 島中에는 山竹이叢生地로 名曰竹島라 稱함 明月은 所謂鏡浦臺에 “달마지” 月出의 奇象을因所謂 天窓에 三個의 明月이보이 며 浮沈水 湖水를 連續하여 月柱의 奇觀即綠波上에 月當의 白海中으로 浮沈前 面까지長亘 數十里의 壯觀을말함
3. 江門漁火 江門은鏡浦湖東南方 竹島之南에在한 漁村地帶 湖海有通交流故로 江門이라稱함 漁火는 昔日本開明時代에 本遣漁船이 夜間作業의 漁火로漁地歸船時 “해” 音等의 漁火가 湖海에 映倒된 美觀落火로되게함 即한것
4. 草堂炊煙 草堂은 湖의南東之東南方에在한村邑인 地帶가 一見의面에 山竹이 叢生한 地로 約百餘年前까지 深山窮谷의感이有하였을함 則日邊는 蒼蒼長松이 矗立하고 其 奧는 深淵하여 深山의雜木과 各色草木이叢生하였다함 故로草堂炊煙은 五湖四山하고 另其 妙景의 周圍에 蒼 松翠竹蓋林之中空寂한農村(草堂)에서 夕飯炊煙의출天窓으로 昇하는 奇觀의 光景을말함
5. 紅塵夜雨紅塵은 鏡湖北岸에在한 奇妙한形象인 白石을말하며 昔時에此白石은 淸遊의

女가轉落한 後名曰紅粧岩이라稱할 夜雨는案寂하秋夜 "구슬픈" 悲哀의怨恨을嗟嘆함

6. 시트봉 照시트봉은 台之北方에在한山峯인데 其形象이시부와恰似하여 名曰시부봉臺의 是는第一高峯임 照는 日晡時西天의彩雲間으로 夕陽照가水平線格으로 北峯에 反映되는景概를感賞한것

7. 喚山吹笛 喚山은部仙客이 想應呼喚即 鏡浦台上山麓에鍊藥石臼가有함 卽新羅仙人永郎述郎이淸遊仙遺跡이有하고 台와相距約十里許에突立한 高峯(上仙峯)이有한데 昔時仙人 "四仙" 이圍棋淸遊하엇다함 山紫水明한第一江山에 "江陵鏡浦台" 萬里歸仙이 雲外로부터홀리오는 吹笛聲을夢中的으로 聯想한것

8. 寒松暮鐘 寒松은 鏡浦之隅의요 草堂之南에 在한寒松寺를말함 暮鐘은 夕間鐘聲을말함 卽古詩 "寒松寺夜半鐘聲到客船" 의詩趣를안함

다. 鏡浦에對한神話및傳說

1. 溟州府의古基

鏡浦水中에在하엿다 昔一姬가其女와率하더니 一日에老僧이乞糧到門이라 其女가후叱하고發을石往에投擲한대僧은無言授去라 姬가自冠하여 北門에退出한대 僧이顧曰汝家門限에 有水하니 不願遠去하라하고 因忽不見이러니 當日日暮果如所言이라 姬는不及告女息하고 城外에走出하엿더니 溟州府가盡陷爲水하고 人盡이皆沒이라 姬가其女를戀히여號哭일러니 因化爲石이라 故로 至今에立石湖岸하고 湖中에往往瓦礫이有하고大路와 小街가穢可辨이라한다

2. 寒松亭曲

寒松亭曲이有하니 世傳此曲이琴瑟에合하여 江南에漂流하엿다 江南人이 그歌詩를 解得치못하드니 高麗光宗朝國人張晉山이 江南에奉使하दा 江南人이河上에서 이한晉山이在詩를解之曰「月自寒松夜 波殘鏡浦秋 哀鳴來又去 有信一沙鷗」

3. 四仙의淸遊

新羅國 貴族大臣이子弟中에 容美才中이出호도 花郎을是自러이 尙少才氣의士를安히호 其中에서 最히英秀한者를 先決로 關東에遊覽키後에朝廷에入仕하디永郎 述郎, 安祥等의 淸遊가卽이것이다 關東은 山水로有名됨

4. 鏡浦台의 移築

現在地에以築된은 當時江陵府江韓의 所謂이다 韓汲은風水學地理에 能通하엿다 江陵의 大家豪族이 來來 殷盛한威勢를藉하고 郡治와官舍를左右함은 畢竟鏡浦를中心한 그의先祖名墓의 昔應의所致됨이라고 韓汲은痛感하고 其名聲壓氣의 一個의 野心으로 臺를移築하엿다는데 其後에大家豪族의威勢는 果然一時衰微하엿다한다

5. 詩人屢客의 文章詩句

라. 鏡浦臺의 題詠

鏡面磨平水府深	昔教州郡俱明照
只監形影未監心	臺上應知客畢臨
十二欄干碧玉臺	綠波翻盡無深淺
大孤春色鏡中開	白鳥雙雙自去來
萬里歸仙雲外笛	東飛黃鶴知吾無
四時遊子月中盃	湖山徘徊故不催